

한국사찰건축의 이해 I

(가람의 성립과 흐름)

◇ 가람의 정의

산스크리트 saṃghārāma를 음역한 승가람마(僧伽藍摩)·승가람(僧伽藍)의 준말이다. 승원(僧院)·승원(僧園)이라고도 한다. 본래 의미는 중원(衆園)으로 여러 스님들이 모여 불도를 닦는 숲 등의 장소를 가리켰는데 나중에는 사원의 건축물을 일컫게 되었다. 사찰은 대개 7종의 건물을 갖추어야 하나의 가람으로 완성되는데 이것을 칠당가람(七堂伽藍)이라 한다. 그러나 반드시 7종으로만 제한되지는 않으며 약간의 가감(加減)이 있을 수 있다. 칠당은 보통 사람의 몸, 즉 머리[頂]·코[鼻]·입[口]·눈[兩眼]·귀[兩耳] 또는 머리[頭]·마음[心]·음부[陰部]·팔[兩手]·다리[兩脚]에 비유되기도 한다. 칠당의 배치와 명칭은 시대·종파에 따라 다르다. 일반적으로 교종사찰(敎宗寺刹)은 탑(塔)·금당(金堂)·강당(講堂)·종루(鐘樓)·장경루(藏經樓)·승방(僧房)·식당(食堂)으로 구성되고, 선종사찰(禪宗寺刹)은 불전(佛殿)·법당(法堂)·승당(僧堂)·고방(庫房)·산문(山門)·서정(西淨)·욕실(浴室)로 구성된다.

◇ 불교의 전래

1. 고구려

《삼국사기》에 의하면 소수림왕(小獸林王) 2년(372) 여름 6월에 진(秦)왕이 사신 부견(符堅)과 함께 순도(順道)스님을 보내면서 불상과 불경을 전하였고, 4년(374)에는 아도(阿道)스님이 진으로부터 왔다고 한다. 5년(375) 봄 2월에는 초문사(肖門寺)를 지어 순도스님을 머물게 했고, 이불란사(伊弗蘭寺)를 지어 아도스님을 머물게 했다. 그 후 불교가 전래된 100여 년 이후인 광개토대왕 2년(498)에는 평양에 9개의 사찰이 창건될 만큼 불교가 융성하였다.

2. 백제

《삼국사기》에 침류왕(枕流王) 원년(384) 9월에 호승(胡僧) 마라난타(摩羅難陀)가 진(晉)으로부터 오니, 왕이 궁에 맞아들이고 존경과 예를 극진히 한

것으로부터 불법이 비롯되었다고 전한다. 다음해에는 한산(漢山)지역에 불사를 창건하고 도승(度僧) 10인을 두었다고 한다. 그러나 아직까지 한산지역에서 사찰지가 발굴된 것은 없다. 백제 사찰건축의 모습을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사찰터들은 모두 도읍을 성왕 16년(538), 웅진에서 사비(지금의 부여)로 옮긴 후 사비지역을 중심으로 건립된 사찰들의 것으로 판단된다.

3. 신라

눌지왕(411-457) 때 아도(阿道, 일명 墨胡子)스님이 고구려 일선군(一善郡) 모례(毛禮)의 집에 와 토굴방을 짓고 살면서부터이다. 오랫동안 공개적으로 불교를 믿을 수 없다가, 법흥왕 14년(527) 이차돈(異次頓)의 순교로, 다음해에 국교로 공인되고 사찰들이 건립되기 시작하여 불교가 융성하기 시작하였다.

《삼국유사》에 의하면 흥륜사(興輪寺), 대통사(大通寺) 등 수많은 사찰들이 건립되었으며, 황룡사와 분황사, 통도사 등은 절터나 유구들이 남아 있는 대표적인 사찰들이다.

◆ 가람의 성립(가람배치-탑과 금당을 중심으로)

1. 고구려

1-1. 정릉사지(定陵寺址)-5세기초에 창건. 중문-목탑-좌우금당, 금당의 배열로써 하나의 탑에 세 개의 금당이 한쌍을 이루어 가람의 중심을 이룸.(1탑 3금당)

1-2. 청암리사지(淸岩里寺址, 金剛寺址)-498년 창건. 중문-목탑-좌우금당, 금당의 배열로써 1탑 3금당을 이룸.

2. 백제

2-1. 군수리사지(軍守里寺址)-6세기중반 창건. 고구려 금강사지의 영향으로 1탑 3금당의 형태를 계승한 것으로 추정.

2-2. 미륵사지(彌勒寺址)-7세기초 창건. 세 개의 탑과 세 개의 금당으로 이루어짐. 동서의 탑은 석탑으로 가운데는 목탑으로 조성. 회랑으로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1탑 1금당의 형식을 보임.

3. 신라

황룡사지(皇龍寺址)-553년 창건. 1탑 3금당을 중심으로 가람이 이루어짐.

4. 통일신라

4-1. 사천왕사지(四天王寺址)-679년 창건. 중문과 금당을 회랑으로 연결하고 두 개의 탑을 배치. 흔히 2탑 1금당식으로 불림.

4-2. 감은사지(感恩寺址)-682년 창건. 사천왕사지와 마찬가지로 2개의 탑과 1개의 금당을 중심으로 가람이 조성됨. 두 개의 닳은 탑이 금당을 중심으로 대칭되는 위치에 건립됨.

4-3. 부석사(浮石寺)-676년 창건. 금당과 탑이 나란하게 배치됨.

4-4. 불국사(佛國寺)-752년 창건. 석가여래와 다보여래의 모습을 실체화하여 두 개의 탑을 조성하고 하나의 금당을 두어 2탑 1금당의 또다른 모습을 보임.

5. 중국과 일본

5-1. 중국-현재 발굴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永寧寺의 경우 1탑 1금당의 형태를 보임.

5-2. 일본-飛鳥寺(1탑 3금당), 川原寺(2탑 1금당), 四天王寺(1탑 1금당) 등 한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를 보임.

◇ 가람의 완성과 다양한 변화

현존하는 가람은 창건 당시 혹은 1-2세기동안의 불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백년 혹은 천년이 넘는 세월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. 화엄, 천태, 법화 등 다양한 불교사상들이 시대의 흐름과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유입, 전파되어 탑과 금당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의 가람배치 원칙에서 벗어나 여러 사상들이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는 것이 현존하는 가람의 가장 큰 특징이다.